

13주차 소감문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입학하기 전 컴퓨터와 많이 친숙하지 않았던 나는, 어떤 형태의 컴퓨터이든, 사면 windows 가 깔려있는 것에 익숙했다. 또 운영체제에는, 맥과 윈도우 이 두가지만이 존재하는 줄 알았다. 소프트웨어개발 방법 및 도구를 수강하면서, 리눅스로 한학기 살아가는 게 하나의 핵심 목표들 중 하나라는 걸 알았을 땐, 불을 처음 만난 원시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우분투 위에서 카카오톡은 할 수 있나? 다운로드에 보니까 windows 란 mac 용 밖에 없는데,'와 같은 현재 이미 익숙해진 windows 와 비교해 리눅스가 가질만한, 불편한 점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본 수업 수강 중 언급한 리눅스의 점유율, 중국컴퓨터의 리눅스화 등을 보면서, 궁금증이 들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리눅스에 대한 평은 굉장히 좋았다. '개발에 최적화되어있다, 안정적이다, 무료여서 좋다'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보였다. 리눅스 os 중 한개를 고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터넷에 내가 고른 os 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느냐였다. 리눅스 os 에 익숙하지 않아 조언해줄 사람이 많은 os 를 고르기로 하고, 우분투를 선택하였다. 운영체제를 한 컴퓨터에서 두개가 정말 돌아갈까 하는 의문과 함께 설치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설치하는 간단하였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역시나 한글입력에 대한 문제였다. 새로운 입력기를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우분투를 개발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에게까지 추천할만 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후 설치를 위해서, 우분투에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코드들을 살펴보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Sudo, apt-get, cd Downloads 등 이런 명령어들은 내가 마치 조금더 발전한 개발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지개도 하는 한편,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방금 입문한 사람처럼 만들었다. 1주차, 2주차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명령어에 익숙해졌는데, 결국엔 터미널창에서 실행한다일 뿐, 윈도우와 많이 다를 건 없었다. 또 처음엔 왜 굳이 윈도우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윈도우에서는 클릭으로 수행하던 명령을 터미널 창에서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다. 4주차, 5 주차,, 진행되다보니 터미널창의 편리함을 알았다. 명령어와 조금 친숙해지고, 터미널에서 거의 모든 컴퓨터 내부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다. 이후 써드파티 앱 설치를 위해, add-apt-repository, ppa 등 저장소를 추가해주는 명령어가 필요한 순간, 다시 답답함이 좀 느껴졌지만, 이도 익숙해지니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명령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터미널 창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다보면 한층 더 발전된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사실은 매우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거지만 작성 후 파일들을 다운받고 압출풀고 상황을 터미널을 통해 지켜보고 있으면, 어딘가 뿌듯해지기도 했다. 13주차에 걸친 우분투 사용을 마치고, 리눅스와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윈도우가 더 편하게 사실이다. 리눅스에는 평소에 우리가 윈도우에서 즐겨쓰는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카카오톡, lol 등을 실행하기 위해선 wine, playonlinux 를 거쳐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리눅스 이용자가 많아 지면 분명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은 지금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창에서의 실행, 무료로 libre office 사용 가능과 같은 매력적인 부분또한 분명히 존재했다. 리눅스를 접해보기 전 나는 메모리 생각, 에러에 대한 생각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편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우분투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메모리에 대한 생각, 최적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컴퓨터와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다. 아직 리눅스의 매력은 다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여름방학에도 이어서 우분투를 사용해보려고 한다. 좀 더 하자면 여름방학에는 우분투만으로도 살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